

안녕하세요. 메시지로 주소를 받고 난 후 바로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이제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연락처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쓰려고 결심하니 예전에는 서랍에 쌓여있던 편지지도 편지봉투도 없어서 급하게 주문했습니다. 한국도 약 15년 전부터는 눈에 띄게 우편량이 줄어 우체국도 주 업무를 우편의 배달에서 물품과 배달로 전환했다고 들었는데 제 책상도 같은 변화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식으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경탁이고 경탁이 제 이름이며 발음은 " " 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한국의 수도)에서 태어나 대학 공부와 군역을 제외하고는 계속 여기서 살았습니다. 흔히 도시 토박이라고 하지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의사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모든 세상에 다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편지를 쓰며 생각해 보니 저도 의사가 된지 21년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아내와 딸이 하나 있으며 올해 15살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걸면서도 순식간에 흐른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앞으로 4~5년 후에는 대학생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 외출을 자주 하지도 않습니다. 대학생 때는 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요즘은 아내의 취미 생활을 돕기 위해 나가거나 건강을 위해 산책을 하는 것 외에 외부활동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는 양궁을 배운적이 있는데, 운동하는 곳의 선생이 개인용 활을 빨리 사라고 압박을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문제는 서울에 양궁을 배울수 있는 곳이 단 한군데라서 완전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나번에도 말~~ 그리고 나서 천체사진을 찍었습니다. 약 4년 정도 했는데 여러가지 한계로 그만둔후 현재는 동전 모임과 투자를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물리적인 형태의 물건을 모으는 일은 요즘은 인기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때는 우표를 수집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요즘은 진짜 우표를 본 사람도 젊은이들 사이에는 많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는 우표를 수집했는데

물론 제가 등전을 수집한다고 해도 한국 정부에서 1년에 한번 발행하는 기념은화나 민트 세트를 사는 수준입니다. 이 ~~취미를 위해~~ ~~정확한~~ ~~개별~~ 등전이 매우 흔하던 시기에는 전혀 몰랐는데 요즘 등전을 보고 있으니 섬세한 각인이 이것도 하나의 예술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직접 손으로 만질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화는 공기에 노출되면 녹이슬고 민트 세트의 등전도 조금씩 녹이 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돋보기를 사서 관찰할까 생각했습니다.

투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5년 정도 일찍 은퇴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결심한 것이지요. 하지만 투자를 하다보니 이것도 생각보다 재미가 있어서 흥미가 되었습니다. 저는 채권과 주식을 주로 운용하는데, 실제로 투자를 시작하니 이것이 돈이라는 느낌보다 게임속의 화폐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부담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번다는 느낌보다 나의 예측이 맞았다는 것이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일종의 예측하기 게임입니다.

생각해보면 여행을 다니는 것이 가장 약 기억에 오래 남고 즐거운 일 같습니다.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의~~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캅카스 지방이나 중앙아시아 여행을 하고 싶는데 아직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은 점점 더 바빠지고 있고 한국에서 2주 정도 휴가를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 지방은 ~~비행기~~ 현지에 도착하는 것만 4~5일이 필요하니까요. 아마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은퇴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번 편지는 여기까지 클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그럼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